

잊혀진 혁명: 중국 개혁개방시기 농촌 잔류여성의 삶*

이 현 정**

본 논문은 『지연된 혁명』에서 마저리 울프가 답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질문—과연 중국 사회주의는 여성해방에 기여해왔는가—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허베이성 북부 농촌에서 현장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혁개방시기 새로운 역사적 국면 속에서 다시 한 번 질문하고 대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특별히 그간 중국 농촌 사회에 나타난 두 가지 형태의 젠더정치학에 주목한다. 첫째,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개혁 하의 노동구조 재편 속에서 나타나는 ‘농업 및 가족노동의 여성화·비가시화(非可視化)’ 경향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산업화 및 도시화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임금노동을 중시해 온 반면 농업노동 및 농산물의 가치를 하락시켜왔으며, 이러한 도농 차별적인 정책 속에서 현금이 필요한 농민들은 주로 도시 이주를 통해 임금노동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농민 여성들의 경우, 타지로의 신체 이동을 제약하는 사회적·문화적 조건으로 인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노동으로부터 배제되어 왔으며, 대신 남성이 떠난 농촌에서 농업노동 및 가족노동을 떠맡아왔다. 이러한 개혁개방시기 농촌의 성별 노동분업 양상은, 집체화를 통해 적어도 농업 및 가족노동을 공식적인 사회적 가치로서 인정해 온 마오시기에 비해 농촌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을 가치평하하고 비가시화하는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국가 개입의 약화와 시장개혁 정책 속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적 가치의 부활’과 ‘새로운 여성성 규범의 등장’이다. 가족 및 여성 개인의 삶을 공산당이 규정한 가치에 의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판단·처벌했던 마오시기와 달리, 개혁개방시기 농촌에서 공산당에 의해 비판되었던 가부장적 가치와 태도들은 경제적 부 또는 부계 친족 이데올로기의 지지 속에서 종종 정당화된다. 이로 인해 과거에 억제되었던 성매매, 첩살이, 여아방치와 같은 현상들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또한 소비문화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8021583). 논평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조교수. anthrolee@snu.ac.kr

의 확산과 도농 간의 문화적 위계 속에서 여성성의 규범화는 시장의 논리 속에서 남성과 다른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즉 여성의 '신체적 아름다움'과 '자녀양육자로서의 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물질적 궁핍을 상당 부분 해결하고 사회경제적 기회를 확장시켜왔다는 점에서 농촌 여성들의 삶을 이전보다 개선시킨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젠더 형평성의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오히려 그 이전보다 성별 간 계층화가 고착되고 불평등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잔류여성, 여성해방, 개혁개방, 가부장제, 중국 농촌

I. 문제제기

『지연된 혁명』(Revolution Postponed)의 저자인 인류학자 마저리 울프(Margery Wolf)는 1980-81년간 중국 각지에서 수집한 현장연구 자료를 통해 1949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중국 공산당이 실시해 온 여성해방 기획의 실재를 보고한다(울프, 1991). 그녀에 따르면, 중국의 혁명지도자들은 가부장제로 인한 여성과 젊은 세대의 억압적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했지만, 그들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뿌리 깊은 문화적 장벽 때문에 여성혁명(feminist revolution)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즉 지도자들의 의도는 좋았지만,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 시각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중국에서 남녀관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¹⁾

울프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당시 도시와 농촌에서 여성혁명이 '지연되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도시에서 '동일노동 동일 임금'(同勞同酬)이라는 공산당의 화려한 구호는 사실상 공허한 외침으로, 현실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과 같은 종류의 직업군에 속하지

1) 공산당의 의도 자체는 좋았지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울프와 달리, 주디스 스테이시(Judith Stacey)는 중국 공산당이 이미 혁명 전부터 가부장적 근간을 보존하고 강화시키고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중국에서 여성혁명이 실패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이다(Stacey 1983: 155-157 참조).

못하며 항상 주변부 일자리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여성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는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직업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여겨지며 쉽게 정당화된다. 반면 농촌에서는 여성의 생산 활동 참여를 국가가 적극 독려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여성들은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농업노동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며 새로운 기술교육으로부터 항상 제외된다. 이러한 배제와 차별의 논리는 무엇보다 여성이 집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리는 강력한 젠더 관념—언어적 표현의 예로는 “여자들은 수레 끄는 동물을 무서워해요”, “여자들은 감히 나무에 올라가지 못해요”, “여자들은 아이들이 잘 있나 보기위해 뛰어다니거나 일찍 집에 돌아가 버려요”, “월경 중인 여자가 눈에 들어가면 짝이 시들어버려요” 등등 (울프, 1991: 98-100)—에 의해서 보존되고 강화된다. 무엇보다 남계친(男系親)에 기초하고 부거제(夫居制) 원칙을 따르는 마을 공동체에서 ‘시집가면 다른 집안에 속해 버릴’ 사람에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은 낭비라고 여겨진다.

본 논문은 울프가 『지연된 혁명』에서 답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질문—과연 중국 사회주의는 여성해방에 기여해왔는가—를 21세기 초 새로운 역사적 국면 속에서 다시 한 번 질문하고 대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지연된 혁명』이 1949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약 30년이 지난 1980년대 초의 시점에서 중국의 여성 현실을 보고하고 결론적으로 여성혁명의 ‘지연’(완곡한 표현으로서의 ‘실패’)을 주장했다면, 본 논문은 그로부터 다시 30여 년이 지난 2013년의 시점에서 특별히 지난 30년 간 진행되어 온 개혁개방 정책 속에서 농촌 여성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러한 변화의 여성주의적 함의는 무엇인가를 성찰해 보고자 한다.

엄밀히 말해서, 본 논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과연 중국 사회주의는 여성해방에 기여해왔는가’라는 질문은 ‘사회주의’ 및 ‘여성해방’이 함축할 수 있는 다양한 의미 및 ‘여성’ 집단 내의 차이에 충분히 주

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근 인류학 및 페미니즘의 성과를 무시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예컨대, 이미 1990년대 후반에 리자 로펠(Lisa Rofel)과 같은 인류학자는 개혁개방시기 서로 다른 세대에 속하는 중국 여성들의 서사를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에게 중국 사회의 진보와 변혁이 매우 다르게 상상되고 경험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Rofel, 1999). 이처럼 지난 수십 년간 인류학과 페미니스트들은 민족지를 비롯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그동안 당연시되어 오던—그럼으로써 배제와 차별을 종속시키거나 강화시키는 데 기여해 온—계급,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민족국가와 같은 사회과학적 분석 범주 및 개념들을 비판·해체하거나 새로운 의미로 전환시키는 일에 광범위하게 참여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학문적으로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 결코 그 의의가 폄하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대 담론’을 상기시키는 질문을 굳이 끄집어내는 까닭은, 어느 순간 ‘다양성’과 ‘차이’를 강조하는 작업이 인류학과 페미니즘이 추구해 온 사회비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오히려—구조적 제약에 대한 천착보다는 ‘개인의 다름’과 ‘선택의 자유’를 신성시하는 정치담론처럼—체제순응과 방관에 기여하는 것은 아닌지 문득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여성 집단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농촌 여성’에 주목한다. ‘농민 여성’이라는 표현 대신 ‘농촌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까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농촌 지역의 여성들이 스스로를 일컬을 때 한국어의 ‘농촌 여성’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는 ‘농촌 부녀’(農村婦女)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젠더 상의 구별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남녀 모두 ‘농민’(農民)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지만, 여성만을 따로 일컬을 때 ‘농민 여성’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다.²⁾ 둘째, 한국 학계에서도 크게 주목되어 온

2) 중국 사회에서 ‘농민’ 개념이 갖는 중요한 정치적 함의에 반해, 왜 ‘농민 여성’

바와 같이(예컨대 정중호, 2000; 조문영, 2011; 이민자, 2007; 장윤미, 2012; 김경환·이중희, 2011; 장영석, 2011), 중국 사회에 존재하는 2억에 이르는 ‘농민공’(農民工)의 존재는 이미 중국의 ‘농민’(農民)이 반드시 ‘농촌’(農村)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농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일상을 살고 있는 농민 여성—즉 ‘농촌 잔류여성’(農村留守婦女, left-behind women in rural China)의 삶에 집중하고자 한다. 사실 ‘농촌 잔류여성’이라는 표현은 ‘떠나지 못하고 농촌에 남아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이미 그 자체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농촌 여성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은 본 논문이 동의하는 바는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현재 이들에 대한 중국 사회의 헤게모니적 태도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미 ‘잔류여성’(留守婦女)이라는 표현이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핵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울프가 목격했던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현재, 개혁개방 정책 아래의 중국 농촌의 여성들은 당시에 비해 남녀평등의 측면에서 더 나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1978년부터 시작된 공산당 정부의 시장개혁 정책은 농촌 여성들에게 더 풍부한 자원과 기회를 허락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여성이 남성과 더 평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었던 것일까? 아니면 시장개혁이 양산한 새로운 상황들은 오히려 농촌 여성의 삶을 더욱 더 차별과 배제의 영역 속으로 밀어 넣었는가?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물질적 궁핍을 상당 부분 해결하고 사회경제적 기회를 확장시켜왔다는 점에서 농촌 여성들의 삶을 이전보다 개선시킨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젠더 형평성의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오히려

혹은 ‘여성 농민’은 독자적인 정치적 범주로서 자리잡지 못했는가는 그 자체로 분석할 가치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기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그 이전보다 성별 간 계층화가 고착되었으며 불평등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장경섭, 1995; 최지영, 2006).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그간 중국 농촌 사회에 나타난 두 가지 형태의 젠더정치학에 주목한다. 첫째,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개혁 하의 노동구조 재편 속에서 나타나는 ‘농업 및 가족노동의 여성화·비가시화(非可視化)’ 경향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산업화 및 도시화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임금노동을 중시해 온 반면 농업노동 및 농산물의 가치를 하락시켜왔으며, 이러한 도농 차별적인 정책 속에서 현금이 필요한 농민들은 주로 도시 이주를 통해 임금노동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농민 여성들의 경우, 타지로의 신체 이동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문화적 조건으로 인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노동으로부터 배제되어 왔으며, 대신 남성이 떠난 농촌에서 농업노동 및 가족노동을 떠맡아왔다. 이러한 개혁시기 농촌의 성별 노동 분업 양상은, 집체화를 통해 적어도 농업 및 가족노동을 공식적인 사회적 가치로서 인정해 온 마오시기에 비해 농촌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을 가치평하하고 비가시화하는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국가 개입의 약화와 시장개혁 정책 속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적 가치의 부활’과 ‘새로운 여성성 규범의 등장’이다. 가족 및 여성 개인의 삶을 공산당이 규정한 가치에 의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판단·처벌했던 마오시기와 달리, 개혁개방시기 농촌에서 공산당에 의해 비판되었던 가부장적 가치와 태도들은 경제적 부 또는 부계 친족 이데올로기의 지지 속에서 종종 정당화된다. 이로 인해 과거에 억제되었던 성매매, 첩살이, 여아방치와 같은 현상들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Jaschok·Miers, 1994; Lee, 2012). 또한 소비문화의 확산과 도농 간의 문화적 위계 속에서 여성성의 규범화는 시장의 논리 속에서 남성과 다른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즉 여성의 ‘신체적 아름다움’과 ‘자녀양육자로서의 모성’을 강조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허베이성 북부 농촌에서 현장연구를 통해 수집된 사례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젠더정치학이 농촌 여성들에게 일상적으로 어떻게 경험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방법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연구자가 2004년부터 2006년, 그리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북부에 위치한 첸장촌(前江村)³⁾ 및 근처 세 마을에서 인류학적 현장연구를 실시하여 획득한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이 중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계속 마을에 거주하면서 현장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년 몇 주에서 몇 달간 머무르면서 연구하였다.

중국 국가 통계에 의하면, 첸장촌이 속한 현(縣: 성급 아래의 행정구역)은 허베이성 중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하나이다(2006년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순수입 한화 약 25만원)(河北省人民政府辦公廳, 2007). 그러나 첸장촌은 허베이성의 주요 현(縣) 및 마을들을 잇는 공공도로 근방에 위치하여 주변 마을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구당 평균 수입이 높은 편에 속한다. 가구 수는 약 600여 가구에 이르고 전체 인구는 공식적으로는 2800명 정도이지만, 상당수의 젊은 사람들이 짧게는 일이 년, 길게는 십 년씩 외지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정확한 마을 인구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첸장촌의 주민들은 소수의 교사 및 근처 행정기관에 출퇴근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농민'(농업호구에 속한 자)이며, 이들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근처 탄광에서 날품팔이 일을 하거나 혹은 근처 오일장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3) 본 논문에 언급되는 성(省) 이하의 지명 및 성명은 연구참여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명을 사용하였다.

현장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는 참여관찰, 비공식적 면담, 심층면담, 초점집단 연구, 생애이야기 수집, 문헌 분석 등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장기간의 참여관찰과 심층면담과 같은 민족지적 방법(ethnographic methods)은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농촌 여성의 일상생활과 개인의 내면적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되었다.

연구자의 참여관찰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방문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특히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두 해 동안에 첸장촌에서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자는 마을 주민들의 농사일, 정치적 회합, 출산 및 양육, 이웃 및 친구관계, 오일장, 수공예품 제작, 학교생활, 혼례와 장례, 질병치료 등 다양한 일상생활의 영역에 참여하였으며, 삼대가 함께 사는 마을 주민의 집에서 함께 숙식하면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활동 및 젠더 역할과 관계를 관찰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연구자가 접한 많은 주민들과 비공식적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그때그때 필드노트에 기록되었다.

심층면담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첸장촌 주민들 중 연령, 성별, 친족관계를 고려하여 선별된 남자 25명, 여성 37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2010년부터 2013년 동안에 첸장촌 여성 주민 24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래 농촌 출신이지만 대도시로의 노동 이주나 사업적 성공을 통해 현의 시내(縣城, town)에 거주하는 남성 3명과 여성 4명에 대해서도 참고삼아 추가적으로 면담을 수행했다. 심층면담에서는 가족과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질문되었으며, 특히 자신이 수행하는 젠더역할에 대한 입장과 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피면담자 중에서 동의하는 사람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개인이 살아온 삶을 전반적으로 구술하는 생애이야기가 수집되었다.

연구자는 현지 보조원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녹음 자료를 전사하였으며 코딩과 초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따라 일차적 가설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새로운 가설을 지속적으로 생성해나가면서 추가적인 면담과 참여관찰을 진행하는 방식을 따랐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I장에서는 개혁개방시기 농촌에서 나타나는 젠더정치학의 첫 번째 특징인 ‘농업노동 및 가족노동의 여성화·비가시화’가 나타나게 된 정치경제적 맥락과 농촌 여성의 실제 모습을 첸장촌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다. IV장에서는 농촌 지역에서 나타나는 젠더정치학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부장적 가치의 부활과 새로운 여성성의 요구’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지역적 양상을 마찬가지로 첸장촌 여성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다. V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두 가지 형태의 젠더정치학이 마오시기와 비교할 때 여성혁명과 관련해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를 최종적으로 논의한다.

III. 농업노동 및 가족노동의 여성화·비가시화

1949년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혁명이 농촌 지역의 여성에게 미친 가장 커다란 영향은 농촌 여성을 더 이상 ‘집 안에 속한 존재’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관념을 확산시켰다는 것이다(울프, 1991; Whyte·Parish, 1984; Johnson, 1983). 중국 공산당은 1950년대의 농촌 집체화(集體化, collectivization) 과정을 통해 여성의 노동 및 생산 활동에 관한 가장(家長)의 결정권을 제한하고 그동안 ‘집안’에 갇혀있던 여성의 사회적 생산 활동 참여를 이끌어왔다. 이제 누가 어떠한 종류의 노동에 참여하고 노동에 따른 보상의 형태가 어떠한가에 관한 결정은 ‘가장’이 아닌 국가가 지정한 각 생산단위-생산소대, 생산대대 및 인민공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가사 및 돌봄노동이 집체가 운영하는 식당, 탁아소, 유치원, 양로원 등

의 부속기관에 의해 담당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단순히 여성의 생물학적 본성의 결과로 간주되었던 가족노동—즉 ‘집안일’과 ‘돌봄’이 사회경제적 가치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국가에 의해 주도된 이러한 변화들은 “남자는 집밖에서, 여자는 집안에서”(男主外女主內)로 요약되었던 전통적인 성별 분업 방식에 도전했으며,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여성 노동의 사회경제적인 가치가 인식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물론 울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여성 노동의 사회화 과정은 공산당이 내건 여성해방의 정치적 구호만큼 평등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예컨대 다양한 성차별적 편견 속에서 농촌 여성은 언제나 남성에 비해 더 적은 보수의 작업에 배당되었으며, 같은 종류의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남성보다 적은 작업점수(工分)를 받았다. 또 여성 가족 성원의 작업점수를 관리하고 어떠한 물품으로 교환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여전히 ‘가장’의 몫이었다(Croll 1983; Stacey, 1983; 울프, 1991).

1978년 중국 공산당은 여러 가지 정치적·경제적 부작용을 생성해 온 집체화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선언하였다. 농촌 생산의 단위였던 인민공사 체제는 1983년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고, ‘가정연산승포책임제’(家庭聯產承包責任制)라는 정책 아래에서 개별 가구가 생산의 단위로서 새롭게 지정되었다. 이제 농민들은 가구별로 경작할 농작물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국가에 수확물의 일부를 납부한 뒤에는 나머지를 자유롭게 시장에 팔 수 있게 되었다. 농업 이외의 부수입 활동도 가능해졌다. 농민들은 추가적인 현금 수입을 위해 생계형 곡물생산 이외에도 묘목이나 약재 등 상업 작물을 기르거나 돼지, 양, 닭, 오리 등의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다(Jacka, 1997). 또한 농촌의 상공업 진흥 정책 속에서 가구 단위의 사업체인 개체호(個體戶)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향진기업(鄉鎮企業)이 등장했다. 그 결과 적어도 1980년대까지만 하

더라도 농촌은 도시만큼 개혁의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Davin, 1988; 김광익, 2010; 양영균, 2001; 전성홍, 1997).

그러나 1990년대 들어오면서 장쩌민(江澤民)이 이끄는 공산당은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도시 중심의 발전 정책에 집중했으며, 농촌은 점차 도시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주변지로 규정되었다. 정부는 공산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대신 도시의 상공업 발전에 복무할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위해 농산물의 가격을 낮추었다. 이제 농민들은 일 년 내내 열심히 일해도 도시 노동자 한 달 월급이면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조차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농가의 일 년 소득은 한 명의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기조차 벅잡게 되었다.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촌의 주민들은 차라리 고향을 떠나 다양한 형태의 도시 이주노동자로 살기를 선택해왔다(정중호, 2000; 조문영, 2011; Cho, 2013; Zhang, 2001; Jacka, 2005).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첸장촌 내의 거의 모든 가구가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거나 한 적이 있는 가족 성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어도 가족 중 한 사람—거의 대부분 남자—은 베이징이나 톈진과 같은 대도시를 비롯하여 가까운 현(縣)정부 소재지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고 있거나, 적어도 버스를 타면 한 시간 이내 출퇴근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이나 탄광에서 일용직으로 임금을 받으며 일한다. 아직 혼인하지 않은 젊은 남성들 중에는 아프리카 대륙을 포함하여 먼 해외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 마을에 남아있는 남자들도 대개 농업 외의 다른 직업이 있다. 이들 중에는 원래부터 비농업인구로서 학교나 국가기관에 정식으로

4) 2006년 당시 첸장촌에서 주민들의 순수 농업소득은 대략 삼천 위안(한화 약 50만원) 정도인 반면, 중학생 자녀 한 명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매달 사오백 위안(한화 약 7만원)이 필요했다. 중국의 국가 법령상 소학교 6년, 초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가운데 소학과 중학의 총 9년이 의무교육 연한이지만, 국가 지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의무교육이 꼭 무상교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공허한 국가정책에 대해 “의무는 무슨 의무!”라며 빈정대곤 했다.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계약직 교사(民班教師)나 정부기관의 사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혹은 구멍가게(小商店)나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두부, 건축자재, 제수용품을 제작하는 등, 개체호 성격의 상공업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 주변 산지를 대상으로 증대하는 광산업과 관련하여, 갯도에 직접 들어가거나 철가루세척장(洗鐵廠)과 같이 외지 출신의 사업자가 농민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영기업체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상당수의 주민들이 국가의 분류에 따르면 여전히 ‘농민’이지만 대부분 ‘농업’에만 종사하지 않으며 현금을 벌 수 있는 다른 노동에 참여해 왔다.

이처럼 농민 남성들이 현금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다른 사업 활동을 모색하거나 가족을 떠나 도시의 이주노동자로 살게 되면서, 농촌에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성별 노동 분업이 형성되어 왔다. 남편이 떠나버린 후, 농촌에 남은 여성들은 무엇보다 분배받은 토지를 경작하고 노부모와 어린 자녀 등 남은 가족을 돌보는 역할이 기대된다. “남자들은 강하고 여자들은 약하다”(男強女弱)라는 전통 관념과 교육 기회의 차이에 기인한 부족한 직업적 능력과 자질(素質), 그리고 돌봄과 아이양육이 여성의 몫이라는 뿌리 깊은 젠더 관념은 개별 가구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여성이 마을에 남도록 추동한다(康芳民, 2008; 周福林, 2006; Jacka, 1997). 그리고 개혁개방시기 중국에서 ‘돈’이 갖는 막강한 힘과 ‘도시’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 혜택과 권한으로 인해, 도시에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남성 이주노동자들은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주체들로 사회에서 평가받는다. 반면, 여성들은—설령 남성들보다 더 고된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단지 현금으로 쉽게 환원되지 않는 농업노동과 가족노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의존하여 “빈둥거리며 시간이나 때우고 있는”(游手好閑) 존재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高小賢, 1994; 孟憲范, 1993; 吳旭, 2008).

<사례 1> 리민(麗民), 50대 중반, 여성, 고졸

리민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여장부(女強人)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10년이 넘도록 마을의 부녀주임(婦女主任)⁵⁾을 맡을 정도로 일처리를 잘하기로(能干) 소문이 나 있다. 그런데 2006년 겨울, 그녀는 다음 해 부녀주임 일을 맡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그녀 자신의 말에 따르면—“남녀불평등적인 결정”(男女不平等的決定) 때문이다. 마을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총 네 명의 간부들—촌장(村長), 회계(會計), 민병대장(民兵隊長), 부녀주임(婦女主任)—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오로지 부녀주임만 절반 격인 천 위안(한화 약 18만원)의 월급을 주기로 촌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위원회 측에서는 부녀주임의 월급이 적은 까닭이 마을의 재정이 부족하고 또 최근에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 부녀주임의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리민은 그것은 진정한 이유가 아니며, 오직 부녀주임만을 여성이 맡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리민이 오랫동안 맡아 온 부녀주임 직책을 그만둔 것에는 그녀의 가족이 처한 특수한 상황도 관여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원래 상점을 운영하다가 최근에 마을의 건축자재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리민은 남편이 외지에 나가 있을 동안 상점을 맡아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농사일을 도맡아 해야 했다. 또한 며느리가 몇 년 전 사고로 죽은 뒤부터는 시어머니, 남편, 아들, 손자를 위해 매일 세 끼의 식사준비 및 빨래와 청소를 해야 했고, 엄마를 잃은 어린 손자를 돌보아야 했다.

리민은 집체화 당시 못 남성들보다 더 많은 작업점수(工分)를 얻을 만큼, 웬만한 남성에 못지않은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변화된 정치체제 속에서 리민은 다

5) 부녀주임은 마을의 행정 간부 중 한 사람으로, 마을 여성들의 출산과 피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개혁개방 이전 시기에는 여성들의 정치 조직 및 동원을 주도하는 역할도 수행했으나 현재는 가끔 상부의 명령을 전달할 뿐이다. 그러나 부녀주임은 남다른 경험과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을 여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부녀주임에게 상의를 하러 오곤 한다.

른 누구보다도 가장 심각한 ‘피해자’로 나타난다. 리민이 혼인할 당시만 해도 비농업인구와 결혼하는 것은 가장 빠른 신분 상승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녀는 다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시 국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과 혼인했다. 그런데 십 년이 채 되지 않아 남편은 개혁정책의 하나로 실시된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속에서 공장에서 퇴출되었으며, 원래부터 비농업인구였던 그는 농사일을 잘하지도 못했다. 남편이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리민은 시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살아야 했는데 시어머니 또한 비농업인구 출신으로서 농사일뿐 아니라 집안일조차 제대로 할 줄 몰랐다.

그녀는 새벽 네다섯 시면 일어나서 밭에 나가 거름을 주고 닭과 돼지들에게 먹이를 준 뒤, 돌아오는 길에는 빨감용 나뭇가지와 반찬을 만들 야채를 밭에서 가져와서는 커다란 아궁이에 불을 때고 아침 준비를 한다. 아침 준비와 함께 하루 종일 가족들이 마실 끓인 물을 준비하고, 시어머니, 남편, 아들이 아침을 먹는 동안 옆에서 손자에게 밥을 먹인다. 가족들이 다 먹고 그릇과 젓가락을 그대로 둔 채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때서야 손자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는다. 그리고 곧장 설거지를 하였으며, 커다란 독에서 물을 떠다가 어린 손자와 가족들의 옷가지를 손수 빨아 빨랫줄에 던다. 그리고 남편이 외출하는 동안 그녀는 손자를 데리고 상점에 나가서 물건을 판다. 남편이 돌아오면 시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간단히 먹고, 그녀는 손자를 다시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맡긴 채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밭으로 나가 농약을 뿌리거나 비료를 치는 등 시기에 맞는 농사일을 한다. 저녁 시간이 되면 그녀는 돌아와 아궁이에 불을 때고 가족들을 위해 저녁 준비를 한다. 만일 도시를 왕래하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밤이면 그를 위해 발 씻을 물을 데워 주고, 방바닥을 걸레로 닦고 이불을 깬다. 리민은 저녁 식사 때면 항상 상점에서 맥주 한 병을 가져다가 마시는데, 이러한 태도는 마을 여성들에게서 거의 볼 수 없는 ‘기이한’ 장면으로, 자신에게 베푸는

유일한 호사(豪奢)인 셈이다.

리민의 경우는 일찍 세상을 떠난 며느리로 인해 어린 아이양육까지 해야 하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편이 외지에 나가 있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 여성들은 농업노동과 가족노동을 거의 전적으로 떠맡고 있다. 혼인한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집안 형편상 어쩔 수 없는 경우⁶⁾가 아니라면 이주노동에 적합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다. 남편이 기본적인 수입 마련을 해결하고 있는 한 혼인한 여성들은 무엇보다 출산하거나 아이를 양육할 것이 우선적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한 여성이 혼자 외지에 나가 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혼인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도시로 나가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절반 가량 된다. 상당수의 혼인하지 않은 여성들이 대도시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비슷한 또래의 남성에게 비해서 교육의 기회를 덜 받아 일자리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와 더불어 ‘성적(性的) 오염’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그로 인한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이다. 설날(春節)과 같은 긴 명절 때면 대도시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고향을 방문하곤 하는데, 시대적 유행(時尙)을 드러내는 그녀들의 옷가지와 화장법은 ‘도시화’ 및 ‘진보’의 상징으로 마을 젊은이들 사이에 부러움을 자아낸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가족을 제외한 이웃 사람들로부터 성적 타락을 의심하는 눈초리를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마을의 혼인하지 않은 젊은 여성들은 도시의 화려함과 자유를 갈망하기도 하고 또 자기만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기회에 매혹되기도 하지만, 혼인 전에 “정숙하지 못하다”(不貞潔)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쉽게 마을을 떠나기가 어렵다.

6) 예컨대 가족 중에 외지에 나가 일할 수 있는 남자가 없을 경우, 그리고 집안의 빚을 갚거나 자녀의 학비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현금이 필요할 경우 등이 해당된다.

<사례 2> 핑핑(平平), 20대 초반, 여성, 중졸

핑핑의 부모는 원래 국가소유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가 90년대에 퇴출되어 마을로 내려온 뒤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 빚이 매우 많다. 2004년 당시, 부모는 오일장(五天場)에 나가서 열심히 옷을 팔았지만 남들보다 장사 수완이 좋지 않아 생계를 잇기조차 힘든 형편이었다. 딱히 공부에 흥미가 없었던 핑핑은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를 가는 대신 차라리 베이징으로 가서 돈을 벌기로 결심하였다. 주변 사람들도 이러한 핑핑의 결정이 빚진 부모와 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이 있는 집안 사정으로 볼 때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이웃의 관시(關係)를 통해 핑핑은 운 좋게 베이징에 위치한 ‘일하러 온 농촌의 젊은 여성’(打工妹)을 위한 비정부 단체를 소개받았으며, 그곳에서 도시노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훈련(글쓰기와 컴퓨터 사용법)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베이징의 한 의류상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핑핑은 취직한 뒤 처음 두어 달 동안은 부모에게 몇 백 위안의 돈을 부쳤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높은 베이징의 물가 때문에 자신의 집세와 식비를 내고는 남는 것이 없어 보낼 수가 없었다. 딸의 경제적 도움만을 기다리던 핑핑의 어머니는 딸이 “베이징에서 일하면서도 자기만 좋은 것을 사먹고 돈 한 푼 안 부친다”고 늘 불평했다. 핑핑이 결국 마을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녀의 베이징에서의 경험이 어떠했는가에 관해 물었다. 핑핑은 어머니의 불평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으며, 사실 자신은 맛있는 것은커녕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거의 굶으면서 지내야했다고 억울해 했다. 마을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핑핑은 근처 마을 출신의 남성과 혼인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녀의 남편은 얼마 후 곧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떠났으며, 핑핑은 현재 아이와 함께 시어머니와 살고 있지만 시어머니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친정에 자주 와서 지낸다.

핑핑의 사례는 농민 여성이 특별한 기술을 갖추지 않은 채 무작정 대도시로 갔을 때 반드시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인 이득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경우 도시에 갔다 온 젊은 여성은 가족을 위해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현금 벌이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무능력하다고 평가되며 오히려 본인과 가족의 체면을 손상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보고해 온 바와 같이 첸장춘의 젊은 여성들 중에도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일거리를 찾아 정착하고, 심지어 도시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Gaetano·Jacka, 2004; Jacka, 2005; Yan, 2008). 그러나 핑핑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농촌 여성의 도시 이주노동은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않으며 턱없이 부족한 교육 기회와 도시 생활에서 부닥치게 되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기도 한다.

<사례 3> 평란(鳳蘭), 40대 후반, 여성, 중졸

평란은 같은 마을 출신의 남편과 결혼했으며 두 명의 아이가 있다. 그녀는 자식들도 돌보지 않는 뇌졸중에 걸린 고모를 보살피는 등 주변 사람들로 부터 인정이 각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남편이 일하다가 기계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절룩거리게 되었으며, 그 이후부터는 일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며 술만 늘었다. 남편이 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농사일만으로는 생계와 자녀의 학비를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란은 본인이 직접 돈벌이에 나서기로 결심하였다. 현재 은퇴한 간부인 평란의 사촌언니가 그녀의 사정을 딱히 여겨 근처 도시의 보모(保姆) 일을 알아봐 주었다. 보모 일을 시작하기로 한 첫 날, 처음으로 낯선 도시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평란을 위해 그녀의 사촌언니와 내가 버스를 타고 동행하였다. 보모로 일하기로 한 집은 은퇴한 남자 교수의 집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일찍 죽고 자식들은 멀리 살았으며 그는 노화와 만성적인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다. 평란은 그 집에서 식사준비와 각종 집안일, 그리고 병간호를 맡게 되어 있었다. 그 날 저녁, 멀리서 찾아온 며느리가 우리 모두에게 직접 요리를 하여 식사 대접을 하였다. 평란은 차려진 음식들을 보면서 자신은 이런 음식을 하지 못한다고 과연 이곳에서 보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그녀의 사촌언니는 곧 배우면 된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결국 평란은 6개월만에 “일도 재미없고 외롭다”면서 보모 일을 그만두고 마을로 돌아왔다.

평란의 사례는 개혁시기 노동의 성별 분업적 성격이 어떻게 중년 여성의 노동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가를 잘 드러낸다. 즉 집체화 속에서 남성과 똑같은 농업노동에 참여했던 농민 여성들은 개혁시기의 노동구조의 재편 속에서 더 이상 남성과 동일한 종류의 노동에 참여할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특히 도시의 상공업 및 서비스 분야는 대체로 ‘다루기 쉽고 보기 좋은’ 미혼의 젊은 여성 노동력만을 원하기 때문에, 평란과 같이 중년의 여성들이 현금 벌이를 위해 갈 수 있는 곳은 보모직과 같이 매우 제한된 분야밖에 없다. 또한 성별에 근거한 노동 분업은 단순히 남녀의 역할을 구분지을 뿐 아니라 노동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위계화하기 때문에, 보모직은 남성들이 택하는 노동의 형태와 달리 그 보수도 매우 낮다.

이러한 모든 차별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평란이 남자 교수의 입맛에 맞는 음식 준비에 자신 없어 하듯, 설령 일상적으로 수행해 온 가사일 및 돌봄노동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의 상이한 생활 방식은 농민 여성의 오랜 노동 경험을 순식간에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곤 한다. 즉 도시 지식인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평란은 마을에서 항상 수행하던 요리와 청소와 병간호를 하면서도 언제나 잘 하지 못하고 배워야하는 ‘무능력한 노동자’일 뿐이다. 따라서 혼인한 중년 농민

여성의 입장에서, 이주노동은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고 집안에서의 역할을 포기할 것을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기대했던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힘들며, 농민 여성으로서의 좌절감을 심화시키는 경험으로 인식되곤 한다.

IV. 가부장적 가치의 부활과 새로운 여성성의 요구

마을 주민들의 관점에서 개혁과 더불어 또 다른 큰 변화는 더 이상 인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치운동과 간부들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공산당은 여전히 인민들을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지만, 문화대혁명의 종결과 더불어 거의 모든 대중조직 활동과 정치 캠페인은 사라졌다. 또한 지방 간부들에 대한 공산당의 경제적 지원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이제 지방 간부들은 스스로의 경제적 활로를 개척하기에 바쁘고 인민들의 개별적 삶에 개입할 여유가 없다.

공산당 간부에 의한 개입의 감소는 농촌 여성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마오시기에는 부부싸움마저도 부녀주임의 중재의 대상이었고, 혼외관계나 남아선호사상은 심지어 공개적인 자아비판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비록 울프는 마오시기에도 공산당이 부계 친족에 근간한 가부장적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개혁개방 30년이 지난 지금 ‘여성억압’이나 ‘남녀평등’ 같은 구호는 마을 여성들에게 구태의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들의 삶은 개별적으로—즉 남편 및 시가족과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들 간의 사회적 역학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영향 요인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례 4> 수연(素娟), 20대 중반, 여성, 중졸

수연은 향(鄕) 정부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는 아버지와 농민이지만 마을에서 바느질을 제일 잘 한다고 소문날 정도로 솜씨가 좋은 어머니를 둔 20대의 젊은 여성이다. 그녀의 부모들은 수연이 학력이 낮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좋은 집안에 시집가지 못할 것을 걱정했지만, 사실 그녀는 “피부가 하얗고 예쁘고 날씬해서”(皮膚白身材苗條)마을의 많은 미혼 남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았다. 수연은 2006년 당시 딱히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마을 근처의 주유소에서 푼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때 이미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황씨의 아들과 부모 몰래 연애를 하고 있었다. 장사 수완이 좋은 황씨와 그의 아내는 농민이지만 일찍이 마을 큰길가에 음식점을 내고 도박꾼들에게 장소를 제공해 큰돈을 벌었으며, 광산업이 유행하자 철가루세척장(洗鐵廠)을 사들여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황씨와 그의 아내는 마을 주민들에게 평이 매우 좋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기 딸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라면 그 집에 시집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무엇보다 황씨는 자신의 부를 이용하여 부인 외의 술하게 많은 여자와 혼외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부인을 때린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또한 황씨의 부인은 그런 남편과 맞설 만큼 “성격이 독하다”(性格有毒)고 알려져 있었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본 바에 따르면 도박과 여자에 빠진 남편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집안 사정을 알면서도 수연은 돈이 많은 황씨의 아들에게 시집가기를 열렬하게 원했으며, 2009년 부모의 격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그와 결혼했다. 두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수연의 시부모와 남편은 수연의 친정부모를 무시하고 사돈으로 대우하지 않았는데, 향 정부의 고위관리로서 나름의 경제력과 정치적 권한을 지니고 있는 수연의 아버지로서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었다. 수연은 혼인한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수연의 시어머니는 손자를 전혀 돌보아주지 않았으며, 다른 젊은 여성들처럼 부수입을 얻을 수 없는

그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남편과 시부모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더욱이 언젠가부터 수옌의 남편은 아버지의 부를 이용해 다른 여자와 혼외관계를 갖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에 대해 전혀 내색하지 않았지만 이웃들은 그녀가 자주 남편과 큰소리로 다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수옌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 황씨의 아들과 혼인한 것이 아니었다. 황씨의 가족이 가진 부를 욕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돈에 팔려간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수옌은 부모가 격렬하게 반대했는데도 스스로의 감정을 좇아 그와 연애했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사람의 혼인은 사회주의 혁명 속에서 공산당이 추구했던 ‘자유로운 남녀 간의 결합’ 그 자체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혼인 후 수옌의 시부모와 남편이 수옌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1949년 사회주의 혁명 당시 공산당이 비판했던 ‘봉건적 관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남다른 부를 누리는 수옌의 시아버지와 남편은 아무런 도덕적 자책감도 없이—심지어 아내의 격렬한 항의 속에서도—혼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단지 수옌의 남자 가족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마을 남자들 중에는 드물긴 하지만 부인 외의 첩(小老婆)을 두고 이중살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공산당이 더 이상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가부장적 태도는 단지 “집안의 사사로운 문제”(家庭瑣事)로 치부될 뿐이다. 첩장촌의 주민들은 “제3자의 문제”(第三者問題: 혼외관계)가 마을의 도덕적 기풍(風氣)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러나 개인 면담을 해 보면, 이미 상당수의 마을 사람들(특히, 남성들)은 혼외관계가 의심할 바 없는 도덕적 잘못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가부장적 가치의 부활은 단지 남편의 혼외관계와 이중살림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마오시기 동안에 각종 캠페인과 간부들의 개입으

로 억제되었던 다양한 남성 중심적인 태도와 행위들이 개혁개방과 더불어 하나둘씩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집안의 대(代)를 이을 남자 아이를 선호하는 태도가 예전에는 좀 더 암묵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좀 더 노골적으로 여아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행동들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혼외관계, 첩살이, 여아 방치, 아내구타 등과 마찬가지로 “집안 문제”(家庭問題)로 간주되며, 이웃 사람들은 감히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삶은 마오시기의 사회주의보다 훨씬 더 남편과 그의 남계친에 의해 결정되는 가부장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한편 수옌이 마을 최고의 부잣집에 시집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보다 그녀가 “피부가 하얗고 예쁘고 날씬”했고 마을 남성들에게 욕망의 대상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시장개혁과 더불어 여성의 ‘신체적 아름다움’은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여성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하얀 피부’와 ‘날씬한 몸’은 마을에서 가장 흔히 듣는 보편적인 여성에 대한 미의 기준인데, 이는 마오시기에서 중시되었던 (남성 못지않은) ‘신체적 강인함과 정신력’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다르다 (Yang, 1999). 이러한 가치 기준은 중국의 상품경제 및 서구화된 소비문화에 기인하고 있었지만, 농민 여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성의 신체가 얼마나 ‘도시 여성’과 가까운가를 측정하는 문화적인 위계 장치이기도 하다.

‘하얀 피부’와 ‘날씬한 몸’은 화장품 몇 개와 식사량 조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농촌 사회에서 이러한 외모를 갖기 위해서는 들이나 밭에 나가 노동하지 않을 수 있거나 적어도 노동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육체적인 노동에 필요한 배부름을 포기할 뿐 아니라 잔치나 의례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귀한 지방질 음식에 대해 초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첩장촌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족노동과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이로부터

면제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신체적 요구는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에게 성취가 불가능한 목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이삼십 대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 이러한 도시적 미적 기준들은 관계의 질과 자존감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마오시기에는 ‘남성화된 여성’이 국가의 이상형이었다면, 개혁개방 시기에 국가가 요구하는 여성은 ‘여성적’ 성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남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다. 특히 한자녀 정책 및 소비문화의 발달 속에서 무엇보다 ‘자녀양육자로서 모성’이 개혁개방 시기 중국 사회에 필요한 여성의 특질로서 강조된다. 그러나 중국 사회의 지배적 담론 속에서 나타나는 ‘모성’ 개념은 매우 모순적이다. 한편으로 ‘모성’은 여성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적이고 타고난 성질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모성 개념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자녀양육의 방식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면서, 그러한 생물학적 본성이 사실상 여성 개인의 지대한 노력 없이 성취될 수 없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도시에서 모성의 강조는 마오시기와 비교하여 여성을 다 시금 집안으로 들여보내고, 새롭게 젠더화된 성별 분업에 따라 여성을 노동 시장으로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어차피 사회경제적 가치로부터 배제되는 농업과 가족노동에 종사해 온 첸장춘 여성들에게 자녀교육은 사회적 노동으로부터 배제되는 문제라기보다는 도시 여성에 대한 모방을 통해 확인되는 바람직한 젠더 정체성의 획득과 농민이라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지위상승의 문제로 인식된다. 즉 첸장춘 여성들이 갖는 자녀교육에 대한 열렬한 관심은 무엇보다 주변 이웃들에 비해 도시 엄마들의 기준과 방식을 재빨리 수용함으로써 ‘앞서가는 여성/엄마’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적어도 자식에게는 농민이라는 낮은 지위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강한 계급의식과 관련된다(Kipnis, 2011).

<사례 5> 메이리(美麗), 20대 중반, 여성, 초중

메이리와 그녀의 남편은 모두 천장촌 출신이지만 칠 년 전 결혼하자마자 대도시인 진황도(秦皇島)로 이주한 뒤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다. 두 사람은 일 년에 한 번 설날 연휴에만 부모와 친척들을 만나러 고향 마을을 방문한다. 그녀는 자신과 남편 모두 농촌보다 도시 생활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농촌에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농촌의 삶이 무엇이 적합하지 않은가라는 나의 질문에 대해, 메이리는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농촌에서는 아이를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도시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 다니고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지만, 농촌의 아이들은 그저 배만 부르면 그 뿐 재능이나 소질(素質) 계발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메이리는 누구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천장촌 사람들은 개방되지 못해서 도시는 위험하고 외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발전이 더디다고 했다.

맨 처음 도시이주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십 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 메이리는 도시이주 선택의 이유를 자녀교육의 맥락 속에 위치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이 자식교육에 관심을 쏟는 ‘좋은 엄마’라는 사실을 강조할 뿐 아니라, 도시 생활을 천장촌에서의 삶과 비교하여 위계 짓고 있다.

메이리와 마찬가지로 마을 주민들은 농촌 사람들은 자녀교육에 관심이 없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데 모두 동의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해서 도시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도시민들과 같이 화려한 삶을 살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젊은 부부들 중에서 아빠가 혼자 충분히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면 엄마는 바깥 노동을 하기보다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고 교육할 것이 기대된다. 그리고 이처럼 며느리가 자식 양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시어머니는 ‘선진적’(先進的)이라고 간주된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이 시작된다고 믿으며, 임신 기간 동안 바깥출입을 자제하고 오로지 집안에서 한 땀 한 땀 수를 놓는 등 고전적인 방식으로 태교를 하는 여성도 마을에 점차 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가난한 집에 시집 온 여성들은 출산 직전까지 농사일과 집안일에서 면제되기가 어렵다.

첸장촌과 같은 가난한 농촌의 맥락에서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자식교육에 애 쓴다’는 것은 소수의 가정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매우 비현실적인 선택이다. 우수한 교육 능력을 가진 교사들은 농촌에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이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중학교 때부터 도시에 있는 사립학교를 보내거나 적어도 현(縣) 중심지에 있는 ‘일중’(一中)에 반드시 보내야 한다. 그러나 도시의 사립학교를 보내는 것은 비싼 학비와 기숙사비 때문에 일반 농민의 수입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좋은 대학들이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에 대부분 몰려있는 반면, 학생들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를 지원할 경우 입학시험에서 추가적인 점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학생들은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대도시 출신의 학생들보다 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렵다. 이처럼 중국의 대학입시는 그 자체로 도농 차별구조를 실현하고 재생산하는 또 다른 장치로 작동한다.⁷⁾

메이리의 아이는 부모의 도시이주 결정으로 인해 아마도 훨씬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 자원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메이리의 열망과 행복감을 어느 정도 달성해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메이리의 남편은 술을 마시면 아내를 때리는 버릇이 있고, 외딴 도시에서 남편의 폭력에 대해 항의해 줄 그녀의 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여성으로

7) 이웃 마을에 칭화대학(靑華大學)에도 거뜰히 합격할 성적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똑똑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중국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장치들로 인한 손해를 감수할 엄두를 내지 못했으며 더욱이 만일 대학에 떨어질 경우 재수시킬 경제적 여유가 부모에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 허베이대학(河北大學)에 지원하였다.

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여러 가지 젠더 위계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폭력의 위협을 마을 여성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혼인 때문이든 돈벌이 때문이든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있는 고향 마을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상적인 모성을 체현한 모습은 주변의 부러움과 칭찬의 대상은 될지언정 여성 본인에게 상당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기를 요구한다.

<사례 6> 샤오화(小華), 50대 중반, 여성, 고중

샤오화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학생시절을 보낸 까닭에 공부를 꽤 잘 했으나 고등학교(高中)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에서 제공한 몇 개월 동안의 의사 훈련과정에 선발되어 마을 의사가 될 수 있었다. 샤오화는 마을의 혼인하지 않은 젊은 여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여성 중의 하나이다. 젊은 여성들은 그녀가 농사일 외에도 의사로서 현금을 벌어들일 뿐 아니라, 세 명의 자식을 모두 베이징과 톈진의 대학에서 공부시키는 모범적인 어머니라고 말했다. 또 남편과의 사이도 좋았다. 그러나 실제로 만나본 샤오화는 마을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우울한 삶을 살고 있었다. 샤오화는 밤마다 아무도 없는 커다란 방 안에서 오로지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식들의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더 머물다가라고 나를 여러 번 설득하던 그녀는 아이들이 전화도 자주 하지 않는다면 외로움과 분노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의사 생활은 어떠한 나의 질문에 대해, 그녀는 이제 마을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면 큰 도시나 적어도 향(鄉)에 있는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의사로서 일도 별로 없다고 했다. 그녀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던 남편을 몹시 그리워했다. 자식들 셋이 모두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현재 자녀들의 학비 마련을 위해 오 년째 베이징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었다. 남편에게 자신이 혼자 살기 싫으니 이제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남편은 대학 학비와 아들 장가보낼 밑천 걱정을 하면서 일이 년 더 있다 오겠다고 했다고 한다.

샤오화의 삶은 마을 주민들에게 여성으로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며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지만, 농민 여성으로서 그녀의 성공—현금 수입이 보장되는 의사직과 남편과의 화목, 그리고 자녀교육의 성취—은 국가가 조장한 공간적·성별 위계 속에서 엄청난 개인적 희생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녀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결혼 생활은 이미 다섯 해째 그녀를 홀로 농촌에 내버려둔 채 그녀의 인내와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이웃 사람들이 그녀를 부러워해도 덩그러니 혼자 집을 지켜야 하는 그녀는 남편의 부재로 인한 우울과 무관심한 자식에 대한 분노로부터 쉽게 벗어나기가 힘들다.

V. 결론: 잊혀진 혁명, 사라진 실천 주체로서의 ‘여성’

개혁개방시기 중국의 사회주의는 농촌 여성들의 여성해방에 기여해왔는가? 연구자가 마을의 여성들에게 마오시기와 개혁개방시기 중국 농촌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비교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들은 거의 모두 조금의 망설임 없이 개혁개방시기가 여성들에게 더 살기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마오시기는 ‘배고픔’으로 상징되는 반면, 개혁개방은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겨우 이불 한 채를 자전거에 싣고 시집을 와야 했던 마오시기와 달리, 지금은 몽골로 베이징으로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도 신혼여행을 가는 세상”이다. 이처럼 개혁개방의 성과들은 ‘누가’의 문제가 삭제된 채로 마치 중국인 모두에게 가능한 현실인양 이야기된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간 사람은 마을에서 단 한 사람도 없었지만 마치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농촌 주민들에게 개혁개방은 과거에 대한 선별된 기억들과 중국 발전에 대한 정부의 화려한 선전 속에서 의심 없이 희망적인 현실 조건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젠더 형평성의 측

면에서 바라보자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또 다른 방식으로 성별 간 계층화를 조장하고 불평등을 강화해 왔으며 그 점에서 마오시기보다 더 나을 바가 없다. 울프는 마오시기 동안 중국 사회가 공산당의 결연한 외침과는 달리 여전히 가부장제를 뿌리 뽑지 못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혁명이 '지연'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개혁개방시기의 도농 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일련의 정책과 지역적 효과들은 마오시기에 시도된 여성혁명의 문제의식과 성과들조차 완전히 잊어버린 듯이 진행되고 있다.

마오시기는 정치적 캠페인과 집체화를 통해 적어도 여성이 남성과 같은 종류의 노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또한 가사 및 육아의 사회화를 통해 기존에 여성적 역할이라고 간주되었던 가족노동에 사회경제적 가치를 부여했다. 그러나 개혁개방시기 중국 사회는 농민 여성들을 사회경제적으로 가치가 부여되는 임금노동의 영역으로부터 배제하는 한편 이들이 주로 담당하는 농업노동 및 가족노동의 가치를 폄하함으로써, 도리어 여성노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또한 마오시기에는 대중조직활동 및 공산당 간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들이 적어도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억제될 수 있었다면, 더 이상 간부들이 일상에 개입하지 않는 개혁개방시기 농촌에서 가부장적 차별과 폭력은 개별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며 여성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사안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시장화와 소비문화는 농촌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삶 및 노동의 방식과 괴리된 여성성의 규범을 요구함으로써 적지 않은 여성들을 불안과 우울의 경험 속으로 밀어 넣는다.

적어도 허베이 북부 농촌에서 관찰되는 바에 따르면, 개혁개방시기 중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은 시장화 정책이 수반하는 개별화 전략 속에서 더 이상 '여성'이 하나의 실천적 주체로서 사고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마을 안의 사회경제적 위계와 차

별 속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더 이상 젠더 문제로 인식되기보다는 집안 혹은 계급의 문제이거나 세대나 연령의 문제, 심지어 개인의 문제로 치환되어 버린다. 또한 각 개별 여성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신의 고통은 젠더뿐 아니라 지역, 계급, 연령 등과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젠더 의식이 투철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농민’, ‘세대’, 혹은 단순히 ‘운명’(命運)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혁개방 정책이 추구해 온 일련의 변화들은 계급적으로-자본가적 지위를 누리는 여성(수옌의 시어머니)에서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주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농민(핑란)에 이르기까지-그리고 연령적으로-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시로 현금 벌이를 찾아 떠난 여성(핑핑)으로부터 각종 집안일에 덧붙여 손자를 돌보아야 하는 여성(리민)에 이르기까지-다양한 농민 여성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억압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해방에 대한 문제의식은 현재 중국 농촌 사회에서 더욱 더 유효하고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김경환·이중희(2011), “중국 신세대 농민공의 사회경제적 특징”, 『동북아문화연구』, 제26권, 401-417쪽.
- 김광역(2010), “현대 중국농민의 일상세계: 공간구조와 관서의 확장”, 『비교문화연구』, 제16권 1호, 127-161쪽.
- 양영균(2001), “얻은 자와 잃은 자: 개혁, 개방 시대 중국의 한 농촌 마을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제7권 1호, 29-64쪽.
- 울프, 마저리(1991), 『지연된 혁명: 중국 사회주의 하의 여성생활』, 문옥표 (역), 서울: 한울(Wolf, Margery, *Revolution Postponed: Women in Contemporar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5).
- 이민자(2007), “중국 농민공의 계층분화와 주변화: 불법 이농민에서 도시 빈민으로”, 『신아세아』, 제14권 2호, 112-135쪽.
- 장경섭(1995), “개혁사회주의의 성편향성: 개혁기 중국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여성학논집』, 제12권, 289-315쪽.
- 장영석(2011), “난하이혼다 파업과 중국 노동운동에 대한 함의”, 『중소연구』, 제35권 3호, 173-200쪽.
- 장윤미(2012), “‘농민공’에서 ‘노동자’로: 중국 신노동자의 정체성 형성과 자각”, 『현대중국연구』, 제14권 1호, 83-117쪽.
- 전성홍(1997), “중국의 개혁과 농민: 농업의 사영화, 농촌의 공업화, 그리고 농민의 계층 분화”, 『신아세아』, 제4권 1호, 113-141쪽.
- 정종호(2000), “중국의 유동인구와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 북경 절강촌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6권 2호, 127-170쪽.
- 조문영(2011), “계급적 소비의 거부: 중국 하얼빈 노동자 빈곤층의 주택 구입 열망을 바라보는 인류학적 시선”, 『한국문화인류학』, 제44권 3호, 79-119쪽.
- 최지영(2006), “개혁개방 이후 탈농업화 속의 중국 농촌 여성 문제에 대한 젠더적 고찰”, 『현대중국연구』, 제8권 1호, 7-41쪽.
- 高小賢(1994), “当代中國農村勞動力轉移及農業女性化趨勢”(당대 중국 농촌 노동력 변화와 농업여성화추세), 『社會學研究』, 第2期, 83-90頁.
- 河北省人民政府辦公廳(2007), 『河北經濟年鑒』(하북경제연감), 中國統計出版社.
- 康芳民(2008), “构建和諧農村的根本-對留守婦女問題的思考”(조화로운 농촌의 기초 구축-잔류여성문제에 대한 사고), 『新西部』, 第2期, 27-28頁.

- 孟憲范(1993), “農村勞動力轉移中的中國農村婦女”(농촌노동력 변화 속의 중국 농촌 여성), 『社會科學戰線』, 第4期, 23-25頁.
- 吳旭(2008), “關於中國農村留守婦女現狀問題的綜述”(중국 농촌잔류여성 현황문제에 대한 총론), 『法制與社會』, 第1期, 234頁.
- 周福林(2006), 『我國留守家庭研究』(중국의 잔류가정 연구), 北京: 中國農業大學出版社.
- Cho, M. Y.(2013), *The Specter of “the People”: Urban Poverty in Northeast Chin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Croll, E.(1983), *Chinese Women since Mao*, New York: Zed Books.
- Davin, D.(1988), “The Implications of Contract Agriculture for the Employment and Status of Chinese Peasant Women”, S. Feuchtang(ed.) *Transforming China’s Economy in the Eighties: The Rural Sector, Welfare and Employment*, Boulder: Westview Press, pp.137-146.
- Gaetano, A. M. and T. Jacka(2004), *On the Move: Women and Rural-to-Urban Migration in Contemporary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Jacka, T.(1997), *Women’s Work in Rural China: Change and Continuity in an Era of Re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Rural Women in Urban China: Gender, Migration, and Social Change*, New York: An East Gate Book.
- Jaschok, M. and S. Miers(1994), *Women and Chinese Patriarchy: Submission, Servitude and Escape*,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Johnson, K. A.(1983), *Women, the Family and Peasant Revolution in Chin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pnis, A.(2011), *Governing Educational Desire: Culture, Politics and Schooling in China*,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Lee, H. J.(2012), “Modernization and Women’s Fatalistic Suicide in Post-Mao Rural China: A Critique of Durkheim”, Kipnis, A.(eds.) *Chinese Modernity and the Individual Psych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p.149-165.
- Rofel, L.(1999), *Other Modernities: Gendered Yearnings in China after Soci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tacey, J.(1983), *Patriarchy and Socialist Revolution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hyte, M. K. and W. L. Parish(1984), *Urban Life in Contemporary China*, Chin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an, H.(2008), *New Masters, New Servants: Migration, Development, and Women Workers in Chin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Yang, M. M.(1999), "From Gender Erasure to Gender Difference: State Feminism, Consumer Sexuality, and Women's Public Sphere in China", Yang, Mayfair Mei-Hui(ed.) *Spaces of Their Own: Women's Public Sphere in Transnational Chin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35-67.
- Zhang, L.(2001), *Strangers in the City: Reconfigurations of Space, Power, and Social Networks within China's Floating Popul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투고일: 2013.11.03, 심사일: 2013.12.09, 게재확정일: 2014.03.06)

Abstract

Revolution Forgotten: Market Reforms and Left-Behind Women in Rural China

Lee, Hyeon Ju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Drawing on Margery Wolf's classic work *Revolution Postponed*, and based on ethnographic research in northern Chinese villages between 2004 and 2013,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whether China's market reforms since 1978 have contributed to women's liberation in rural areas. To attain this aim, the paper examines two forms of gender politics in reform-era rural China; the feminization and devaluation of agricultural and family work, and the revival of patriarchal violence and the emergence of new norms of femininity. First, compared with Mao-era China, where field and family work was socialized in the state project of collectivization, new forms of gender division of labor under market reforms have tended to devalue women's agricultural and family work. Second, as the state intervention with the individual family has weakened under reforms, patriarchal violence, such as wife beating and having a second wife, has revived in rural areas. At the same time, marketization and consumer culture have led to the emergence of new norms of femininity, emphasizing the urbanized body and the passion for child education. In short, this paper argues that although China's market reforms have improved women's life in terms of material enjoyment and socioeconomic opportunities, they nevertheless have reinforced gender hierarchy and inequality in rural areas.

Keywords

left-behind women, women's liberation, market reforms, patriarchy, rural China